

'돌아온 프로야구의 계절'... 바뀐 규칙 적용

8일부터 50경기... 17일 대전 신구장 첫경기 피치클록 정식 도입·ABS존 하향조정 적용

봄을 알리는 프로야구 2025시즌 시범경기가 막을 올린다.

올해 시범경기는 8일부터 18일까지 팀당 10경기씩 총 50경기를 진행하며, 새 시즌부터 도입되는 규정과 규칙을 모두 적용한다.

시범경기 개막전은 KIA 타이거즈-롯데 자이언츠(부산 사직구장), LG 트윈스-kt wiz(수원 케이티위즈파크), 두산 베어스-한화 이글스(정주구장), SSG 랜더스-삼성 라이온즈(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키움 히어로즈-NC 다이노스(창원NC파크) 대전으로 열린다. 오후 1시에 시작한다.

새 홈구장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리는 한화의 역사적인 첫 경기는 17일과 18일 삼성전이다.

지난 2022년 착공해 지난달 28일 준공한 대전 한화생명볼파크는 좌

측 99m, 우측 95m로 지어지는 비대칭 구장이다. 우측 펜스까지 거리는 국내 야구장 가운데 가장 짧은 대신 8m 높이의 '몬스터 월'이 자리해 야구팬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올해 시범경기의 가장 큰 변화는 피치클록의 본격 도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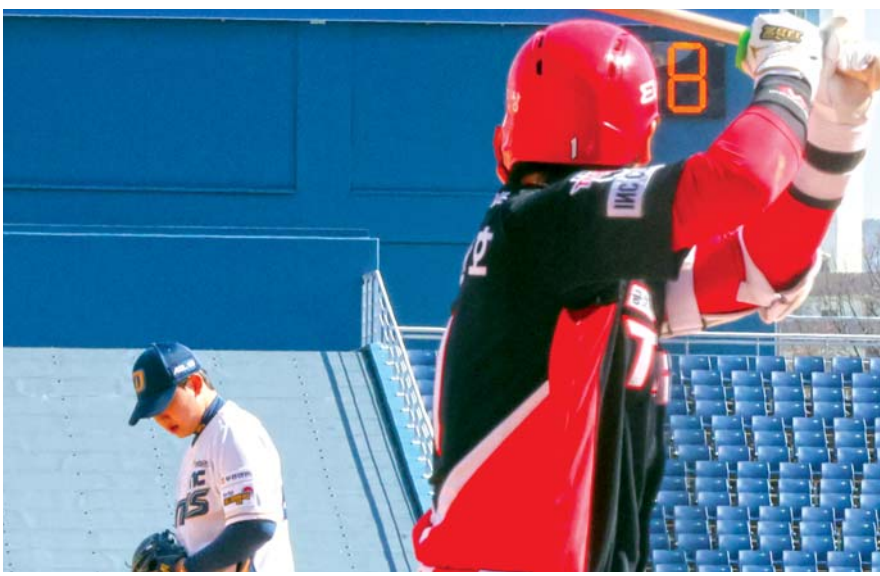
경기 시간을 단축해 팬들에게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보여주는 게 목적인 피치클록은 시범 도입했던 지난해 시범경기 시간을 24분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

지난해 시범 적용했던 피치클록은 올해부터 '주자 없을 때 20초, 주자 있을 때 25초 내 투구'를 철저히 적용한다. 타자는 33초 이내에 타석에 들어서야 하고, 타석

당 타입아웃은 두 번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시 투수는 볼, 타자

는 스트라이크의 제재를 받는다. 이닝 교대 시간은 현행 2분에서 2분 10초로 늘고, 이닝 중 투수 교체 시간은 2분 20초에서 2분 10초로 10초 당겨졌다.

지난해부터 적용한 자동투구판정시스템(ABS)은 현장 의견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ABS는 지난 시즌 타자의 키에



창원NC파크 전광판 아래 설치된 피치 클록이 작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례해 상단 56.35%, 하단 27.64%를 적용했으나 올해는 상단과 하단 모두 0.6%씩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신장 180cm 타자를 기준으로 하면 약 1cm가량 스트라이크 존이 아래로 내려간다.

시범경기에는 소속 선수와 육성 선수 모두가 출전할 수 있고,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연합뉴스

시범경기에는 소속 선수와 육성 선수 모두가 출전할 수 있고, 출장 선수 인원 제한은 없다. 연합뉴스

셀틱 양현준 BBC '이주의 팀' 선정 세인트 미렌전에서 25분만에 2골 1도움 맹활약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십 셀틱에서 활약하는 '짧은피' 공격수 양현준(22)이 영국 공영방송 BBC 선정 29라운드 '이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다.

BBC는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조너선 서덜랜드가 뽑은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29라운드 '이주의 팀'을 공개했다. 3-4-3 포메이션으로 뽑은 BBC 선정 29라운드 '베스트 11'에는 양민혁이 스리톱 공격수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양민혁은 지난 1일 세인트 미렌과 원정 경기에서 후반 20분 교체로 출전해 25분 동안 2골 1도움의 눈부신 활약을 펼치며 셀틱의 5-2 대승에 힘을 보탤었다.

양현준은 그라운드를 밟은 지 3분 만에 헤더로 골 맛을 보더니 후반 43분 마에다 다이젠의 득점에 도움을 줬고, 후반 추가 시간에는



골세리머니를 펼치는 양현준. 연합뉴스

또다시 헤더로 멀티골을 완성했다. 서덜랜드는 양현준에 대해 "엄청난 임팩트를 줬기에 베스트 11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양현준의 팀 동료인 마에다와 하타테 레오도 29라운드 '이주의 팀'에 함께 포함됐다. 연합뉴스

PGA 코리안 군단, 특급 대회 동시출격

임성재·김주형·안병훈·김시우 무기력증 극복 '기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뛰는 임성재, 김주형, 안병훈, 김시우 한국 선수 4총사는 최근 최종 라운드 순위표 상단에 좀체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 선수 중 세계랭킹이 가장 높은 22위 임성재는 최근 2개 대회에서 연달아 컷 통과에 실패했다.

김주형은 7개 대회에서 컷 탈락은 한 번 뿐이지만, 최근 2개 대회에서 내리 40위 밖으로 밀렸다.

작년 PGA 투어 데뷔 이후 최고의 시즌을 보냈던 안병훈은 6개 대회에서 3번이나 컷 통과를 못했다.

김시우도 5개 대회에서 2번 컷 탈락을 겪었다.

집단으로 무기력증에 빠진 모양새다.

임성재, 김주형, 안병훈, 김시우는 오는 7일(한국시간)부터 나흘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베이힐 클럽&리지(파72)에서 열리는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API

에 출전한다.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은 이번 시즌 네 번째 특급 지정 대회(시그니처 이벤트)로 총상금 2000만달러에 우승 상금은 400만달러에 이른다. 페덱스컵 포인트도 일반 대회 500포인트보다 훨씬 많은 700포인트가 걸렸다.

이런 특급 대회에서 우승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10위 이내에만 진입해도 상금과 포인트가 쑥 올라간다. 답답했던 최근 무기력증에서 벗어날 기회다.

그렇지만 특급 대회인 만큼 경쟁도 심하다.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LIV 골프에서 뛰는 티릴 해턴(잉글랜드)만 빼고 9명이 출동한다.

디펜딩 챔피언인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와 올해 상승세가 뚜렷한 세계랭킹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연합뉴스

김연경, 7번째 정규리그 MVP 정조준

남자부는 삼성화재 레오vs허수봉 '집안싸움'

프로배구 2024-2025 V리그가 마지막 6라운드를 진행 중인 가운데 정규리그 남녀부 최우수선수(MVP)로 누가 뽑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VP는 올 시즌이 모두 끝나고 4월 14일 열리는 V리그 시상식에서 결정된다.

여자부에선 올 시즌을 끝으로 코트를 떠나는 '배구 여제' 김연경(흥국생명)이 통산 7번째로 MVP에 오를지가 최대 관심거리다.

김연경은 국내 무대에선 여덟 시즌밖에 뛰지 않았지만, 지난 시즌을 포함해 여섯 차례 MVP로 등극했다. V리그에 데뷔한 2005-2006 시즌 신인왕과 MVP를 석권한 데 이어 3년 연속 정규리그 최고의 선수로 이름을 올렸다.

해외 무대에서 뛰다 복귀한 뒤에 또 김연경의 활약과 인기는 사그라

지지 않았다. 2020-2021시즌과 2022-2023시즌, 2023-2024시즌에도 정규리그 MVP 영예를 차지했다.

그는 V리그에서 뛰는 마지막이 될 올 시즌에도 흥국생명의 정규리그 1위 확정에 기여했다.

올 시즌 총 566점을 뽑아 외국인 공격수를 빼고 국내 선수 중 가장 높은 6위에 이름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에선 45.87%로 부문 2위를 달리고 있다. 김연경은 이런 활약을 인정받아 올 시즌 1, 2라운드에 이어 5라운드 MVP에 올랐다.

올 시즌 흥국생명이 통합우승을 노리는 데다 선수로 뛰는 마지막 시즌이라는 점까지 작용해 김연경의 7번째 MVP 등극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남자부 MVP 경쟁은 정규리그 1



정규리그 1위 시상식에서 아본단장 흥국생명 감독과 함께 한 김연경(오른쪽). 연합뉴스

위를 확정된 현대캐피탈의 좌우 쌍포인 레오나르도 레이바 마르티네스(등록명 레오)와 허수봉이 '집안싸움'을 벌이는 분위기다.

레오는 5번째 MVP 등극을 노리는 반면 허수봉은 첫 수상에 도전한다.

레오는 삼성화재 소속이던 2012-2013시즌부터 3년 연속 정규리그 MVP를 차지했고, 2023-2024시즌에는 소속팀이었던 OK저축은행이

정규리그 3위를 했음에도 4번째 MVP를 수상했다.

올 시즌에도 레오는 득점 부문 2위(626점)와 공격 부문 4위(성공률 53.39%), 오픈 공격 부문 1위(성공률 45.71%)에 오르며 소속팀을 정규리그 1위로 이끌었다.

허수봉은 득점 부문 4위(521점)와 공격 부문 3위(성공률 54.34%), 서브 부문 3위(세트당 0.37개)를 달리며 활약했다. 연합뉴스

취 임



남녕고등학교 교장

교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내딛는 걸음 걸음이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이철우
(부: 이종익 · 모: 김정옥)
(배우자: 오주연)

가족일동

취 득

제주대학교 해양생명과학과 이학박사



부문수
(부: 부동진 · 모: 이순영)

취 득

아주대학교 공학박사(전자공학)



부준석
(조부: 부영무 · 조모: 양춘일)
(부: 부영욱 · 모: 문윤자)

학위 취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부만자준자중친회